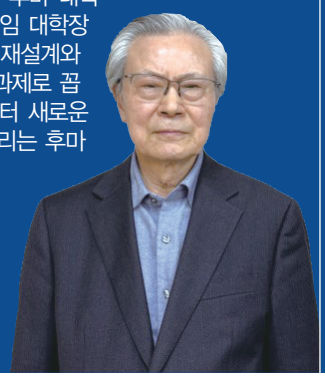
이한구 신임 후마 대학장 | 6면 인터뷰

후마니타스칼리지에 11년 만에 후마 대학장이 임명됐다. 이한구(철학) 신임 대학장은 AI 시대에 맞는 교양교육의 재설계와 후마의 정체성 재정립을 핵심 과제로 꼽았다. '후마 혁신위원회' 구성부터 새로운 교육 인증제 도입까지, 그가 그리는 후마의 미래를 들어봤다.



학사 · 석박 통합 연계과정 도입, 기대와 우려 공존 | 7면 기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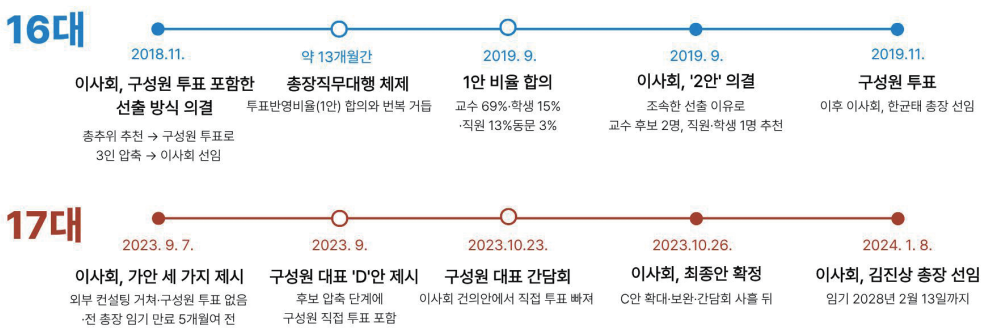
우리학교가 내년부터 학사 · 석박 통합 연계과정을 도입하면서 학위 취득 기간 단축에 대한 기대와 연구의 질 저하 우려가 교차한다. 새 제도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연구 여건과 장학 지원 등 제도 안착을 위한 과제를 짚어봤다.

대학주보

제 1769 호
2026년 11월 9일 월요일

16대엔 투표, 17대엔 숙의…18대 총장 선임 방식은 구성원 참여 축소 '평가' 속 제도 개선 목소리도

도은오 기자 eunohdo@khu.ac.kr
서라수 기자 sooxoosoo@khu.ac.kr



노조 집회에 가처분 신청한 학교… 쟁의권 제한 논란 학교 "구성원 권리 보호" vs 노조 "정당한 활동 위축"

김민영 기자 myk5060@khu.ac.kr

우리학교가 전국대학노조와 산하 경희학원지부 · 산학협력단지회를 상대로 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 우리신문은 학교와 노조 양측의 입장을 통해 가처분 신청의 배경을 살펴보고, 대학 내 노동조합 활동과 구성원의 권리를 둘러싼 법적 쟁점을 짚어봤다.

학교, 구성원 권리 보호
과거 집회 사례 근거로 제시

학교 측은 이번 가처분 신청이 노조 활동 자체를 막으려는 것이 아닌, 대학 본연의 기능인 교육·연구·행정과 구성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오세윤 인사처장은 "대학은 다양한 구성원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존중되는 공간이지만, 그 과정에서 교원들의 교육·연구와 학생들의 학습권, 직원들의 행정업무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은 노조의 집회·시위 과정에서 대학의 정상적인 기능이 침해된다면 이를 방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며 "자제를 요청하는 의미의 최소한의 자구책으로 법정에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주장은 지난달 14일 우리학교가 법원에 제출한 추가 준비서면에서도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처장은 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유사한 장소에서의 행위 방식과 그 영향을 살펴기 위함"이라며 과거 노조 집회로 인해 업무 및 시설 이용에 차질이 빚어진 사례를 설명했다.

먼저, 지난해 3월 서울캠 본관·청운관과 국제캠 중앙도서관·학생회관에서 진행된 집회와 시위에 대해, 이 과정에서 구성원의 통행 불편과 학생들의 학습환경에 지장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해 11월 서울캠 본관에서 열린 임금·단체협약 교섭 당시에는 집회 참가자들의 회의 참관 요구로 회의 개시가 지연됐다고 밝혔다.

지난 2월 5일부터 2025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을 하루 앞둔 24일 밤까지 이어진 서울캠 본관 앞 천막농성 등 본관 일대 집회도 사례에 포함됐다.

본관 앞 공간을 집회 농성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가 구성원의 통행 불편을 야기했다는 것이다.

최근 사례로 지난 9월 국제캠 중앙도서관 내 선전물 게시와 10월 1일 열린 학생회관 집회를 제시했다.

학교 측은 선전물 게시 위치와 범위 등이 중앙도서관의 관리·이용과 관련해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생회관 집회는 당시 취업컨설팅 부스 앞에서 진행돼 학생들의 프로그램 운영에 지장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2면에 계속 ➞

70년 만의 구성원 투표, 4년만에 폐지

16대

2018.11. 이사회, 구성원 투표 포함한 선출 방식 의결
총추위 추천 → 구성원 투표로 3인 압축 → 이사회 선임

약 13개월간 총장직무대행 체제
투표반영비율(1안) 합의와 번복 거듭

2019. 9. 1안 비율 합의
교수 69%·학생 15% ·직원 13%동문 3%

2019. 9. 이사회, '2안' 의결
조속한 선출 이유로 교수 후보 2명, 직원·학생 1명 추천

2019.11. 구성원 투표
이후 이사회, 한균태 총장 선임

17대

2023. 9. 7. 이사회, 가안 세 가지 제시
외부 컨설팅 거쳐·구성원 투표 없음 ·전 총장 임기 만료 5개월여 전

2023. 9. 구성원 대표 'D'안 제시
후보 압축 단계에 구성원 직접 투표 포함

2023.10.23. 구성원 대표 간담회
이사회 건의안에서 직접 투표 빠져

2023.10.26. 이사회, 최종안 확정
C안 확대·보완·간담회 사흘 뒤

2024. 1. 8. 이사회, 김진상 총장 선임
임기 2028년 2월 13일까지

원 직접 투표가 포함된 'D안'을 제시했지만, 한 달 뒤 10월 22일 열린 간담회에서 이사회에 건의된 안에는 직접 투표가 빠져 있었다. 사흘 뒤인 26일, 이사회는 처음 내놓은 가안 가운데 C안을 확대·보완한 최종안을 확정했다. 최종안은 ▲초빙 공모 ▲후보자 추천 ▲숙의·자문 ▲후보 선정 ▲심의·의결 ▲임용 단계로 이뤄졌다.

확정된 총장 선임제에서 구성원은 후보 추천과 숙의 단계까지만 참여할 수 있었다. 후보를 5인으로 압축하는 총장후보숙의위원회 9명 중 5명은 이사회 측 인사였다. 이후 이사회는 2024년 1월 8일 김진상 교수를 제17대 총장으로 선임했다.

16대 '첫 구성원 투표'
17대 '수동적인 위치'

16대 총장 선임 과정에 참여했던 구성원 대표들은 당시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다고 기억한다.

3면에 계속 ➞